

성(性)정체성 문제...깊어지는 사회혼란



성중립 화장실 표시.©크리스천포스트

뉴욕 시 주민은 최소 31가지로 성별(性別)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선택한 성적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기업은 시의 인권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규칙에 따라 10만 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또 모든 성별 정체성은 시의 차별 금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뉴욕 시는 이 성별 정체성의 정의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에 University of Wisconsin과 UC Berkeley에서는 관련 용어집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별 호모(gender-queer)”는 정체성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성별을 넘어 또는 여러 성별을 조합한 사람임을 의미한다. “성별 벤더(gender bender)”는 성별을 굴절, 변경, 혼합, 또는 남성과 여성스러움의 요소를 함께 표현하여 사회의 성별 규칙을 결합한 사람을 뜻한다.

뉴욕시의 성적 정체성 전체 목록은 시의 인권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문서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http://www.nyc.gov)

이 안내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행되었는데 언론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

美대법원에 의해 동성애가 합

법화되면서 성적체성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할인 마켓인 타겟 등 기업

체가, 예일대학 등 학내에서, 이미 성전환자들을 위한 화장실 사용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며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전환자 운동가 대통령 신앙자문위원회에 임명돼”

최근 라이프사이트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의 신앙과 이웃 파트너십 자문 위원회(이하 신앙자문위원회)에 성전환자 운동가가 임명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논쟁이 큰 공립 학교 성전환자 법령을 내리기 전날에 이 위원회에 첫 성전환자 운동가를 임명한 것이다.

82세의 바바라 새틴(Barbara Satin)은 남성 데이빗(David)으로 태어나서 1990년대부터는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LGBT)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60세 즈음에 여자가 되기로 했다. 새틴은 United Church of

Christ 교회 교인이며 교단 집행 위원회에서도 섬겼고 LGBT 운동가로서 종교와 노회 활동에 집중해왔다.

대통령의 신앙자문위원회는 신앙과 이웃 단체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을 소집, 불우 이웃을 돕는 방법들을 정부에 권고하며 대통령에게 정책과 관행을 자문하는 위원회이다.

우리는 성전환자 운동가가 크리스천들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신앙에 대한 정책 등을 자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영인 기자

“2016美연합감리교회(UMC) 총회 폐막”

동성애 문제 2018~19년 회기로 연기...규정44 거부, 새찬송가 제작 승인

美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 총회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그러므로 가라” 주제로 오리건의 포틀랜드에서 열렸다.

교단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의 5월 16일 예배에서 루이지아나 연회의Cynthia Fierro Harvey감독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

Harvey감독은 “우리 ‘잔치’가 총회이건, 하나님의 나라이건,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6 총회 참석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를 맺도록” 부름 받았음을 상기시켰다.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왕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오라고 초대하시지만, 잔치를 통해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신다고 강조했다.

이 총회의 관심사 중 하나는 역시 동성애 문제였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총대들은 찬성 428명, 반대 405명으로 동성애자 성직 임명과 동성혼에 대한 법안을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감독회의(Council of Bishops) 브루스 오(Bruce

Ough) 회장은 “성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안건은 이번 총회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총감독회의의 권한으로 이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다음 총회까지 UMC 내 다양한 구성원들을 위원으로 선정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교리서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라는 단어의 의미, 성소수자의 성직 임명, 동성결혼 인정 등이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복잡한 입법안을 다루기 위해 제안된 그룹분별과정인 회의규정 44 안건도 거부됐다.

반면에 1989년 이래 UMC는 새로운 찬송가 제작을 승인했다. 이 새로운 찬송가는 인터넷-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인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이영인 기자

“성서번역언어”

지난해 21개 늘어
총 2,935개 언어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최소한 단편(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 수가 총 2,935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15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Global Scripture Access Report 2015)’에 따르면, 전 세계 6,887개의 언어 중 성경전서는 2014년보다 21개가 더 많은 563개 언어로 번역 완료됐다. 또 신약전서는 1,334개, 단편(쪽복음)은 1,038개 언어로 번역됐다.

UBS는 각국 성서공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번역본을 개정하고 새로운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한인 세계 선교 대회

제15차한인세계선교사대회(KWMF), 제8차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제3차선교사자녀대회가 오는 6월 3일(금)부터 10일(금)까지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각각 열린다.

한인세계선교사회(KWMF)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현재 25,000명)들의 친목과 협력 및 선교전략을 연구하는 한인 선교사 협의회이다.

이 협의회는 매 4년 마다 함께 모여 한인선교(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각처로부터 달려온 선교사들에게는 쉼과 위로, 격려가 되는 영적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복음사역의 장을 간접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일시: 6월 3일(금)~10일(금)
△KWMF대회:3일~6일
△KWMC대회:6일~10일
△선교사자녀대회:6일~10일
▲문의: 516-277-2081
▲참조: www.kwmc.com
www.kwmf.info
▲장소:아주사퍼시픽대학교
▲주소:901 E Alosta Ave.,
Azusa, CA 91702

희귀 혈액암 투병중인 1.5세 목회자 돕기 위한 골수 기증자 찾기 운동

UMC 뉴욕연회에서 30여 년간 몸담아 온 1.5세 목회자 김종성 목사가 골수섬유증이라는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 가운데 항암치료로는 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한인 골수기증자를 급히 찾고 있다. 문의는 새생명재단(718-640-5443)으로 하면 된다.

“예수영매를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크스, 열마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남가주교협 신임회장 강신권 목사가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제15차 KWMF 대회를 소개 기자회견이 5월 20일 LA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열렸다.

“신뢰 회복, 화해 실현, 네트워크 확장”

남가주교협 강신권 회장 취임...OC교협·LA총영사관 등에서도 참석 축하해

남가주교협 신임회장 강신권 목사가 5월 22일 본인이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세계성경장로교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강 회장은 남가주교협의 신뢰 회복, 화해 실현, 네트워크 확장 등을 약속했다. 사역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회복하고 교계가 독립적이면서도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남가주교협의 사역이 차세대로 이어지고 미 전역과 전 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 나아가 타민족에까지 확대되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5월 9일 임시총회에서 강 회장이 당선된 이후, 2주 만에 준비된 취임식이었지만 200여 명에 가까운 하객들이 참석했고, OC교협, 남가주



강신권 목사
남가주교협 신임회장

한인목사회, LA총영사관으로부터 각각 민승기 회장, 엄규서 목사, 이창수 영사 등이 직접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OC교협 민회장은 “남가주교협은 훌륭한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혹독하게 겪었다. 이런 아픔을 잘 견뎌내어 많은 한인들을 보다 폭넓게 보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전진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창수 영사는 이기철 총영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총영사는 “남가주교협이 1,400여 교회를 대

표하는 협의회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한인 동포사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단합하는 데에 기여하는 진정한 교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 외에도 엄규서 남가주한인목사회장, 정시우 남가주교협 명예회장이 축하했고 에릭 가세티 LA시장, 데이빗 류 LA시의원,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예배 사회는 김재울 수석부회장이 맡았으며, 설교는 한기형 목사가 “예수님의 몸을 세우자”란 제목으로 전했으며 이은수 목사가 특별찬양을 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취임식의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김준형 기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KWFMF 대회 및 총회 개최...6월 3일~6일까지

전 세계 한국인 선교사들의 연합체인 한인세계선교사회(KWFMF) 제15차 대회 및 총회가 오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아주사파시픽대학교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는 주제로 열린다. 이 대회는 4년마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회의 회(KWMC)가 개최하는 한인세계선교대회 직전에 열려왔다.

이번 KWMF 대회에서는 스캇 선키스트 교수(풀러신학교), 고석희 사무총장(KWMC), 한정국 사무총장(KWMA) 등 선교 전문가와 함께 김동엽 목사(목민교회),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등 한국

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부흥회와 선교 세미나, 분과별 토론회와 소그룹 발제, 지역별 포럼, 정기총회 등의 일정이 있으며 폐회예배 때에는 선교 선언문도 채택한다.

김경일 선교사(사무차장, 미주주비위원장)는 “인랜드교협, 벨리교협, 동부교협, 사우스베이교협 등과 협력해 약 100여 교회가 선교사들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보고하면서 “더욱 많은 교회가 선교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했다. 선교사 초청에 관한 문의나 요청은 김경일 선교사(213-507-3875)에게 하면 된다.

KWFMF는 1977년에 창립돼 현재 전 세계 2만 6천여 한인 선교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KWMC 대회를 앞두고 공동준비위원장들이 은혜한인교회에 모여 회의했다.

“KWMC 대회 위한 공동준비위원장단 모임 열려”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공동준비위원장단 제3차 모임이 5월 24일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상임준비위원장 김기동 목사(충만교회 담임)가 공동준비위원장 10명을 소개한 후 실행총무 양태철 목사가 대회 장소인 아주사파시픽대학교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인세계선교사회(KWFMF) 사무총장 안성원 선교사가 한인세계선교사대회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 모임에는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도 참석해, 대회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전한발제일교회 담임 이영환 목사는 한인세계선교대회(KWMC)와 한인세계선교사대회(KWFMF)를 위해 1천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약정했다.



남가주벤엘교회에서 '귀빈 축제'라는 이름의 새신자 초청 집회가 열렸다. 이날 약 80여 명의 새신자가 이 교회를 방문했다.

남가주벤엘교회 귀빈축제 “복음의 능력 누리세요”

남가주벤엘교회가 5월 말, 새신자 초청 '귀빈 축제' 예배를 드렸다. 행사는 1부 축제의 예배, 2부 친교의 시간으로 각각 진행됐다.

남가주벤엘교회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시종일관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은혜 가운데 드러졌다. 오병익 담임목사는 사도행전 16장 25~32절을 본문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복음 안에 있다”면서 “진정 복음 안에서

자유와 쉼,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선포하며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이어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함께 소그룹별 식탁의 교제시간을 가졌다.

오 목사는 “성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소그룹 중심으로 수개월 전

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다. 새신자를 품고 전 교인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남가주벤엘교회는 6월 17일(금)~19일(주일)까지 순대성 목사(한국산돌교회 담임) 초청 부흥집회를, 7월 10일(주일)에는 최덕신 목사 초청 찬양집회를 각각 연다.

SAS 인가컨설팅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summitus37@gmail.com

Grace Mission University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여름특강안내 (자세한일정은 학교홈페이지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선교신학 I (김요한 교수)• 교회 웹사이트구축과 운영 I (구자혁교수)• 선교실습 I (허동현교수)• 헬라어 I (김현완교수)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온라인 과정• 저렴한 교육비• HD 시스템 및 Live 온라인 강의• I-20 발급 및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English Track 및 LA Extension Class	LA 오픈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 웹사이트구축과 운영• 6월 15일 10시• 1520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LA 코디네이터:T(714)335-6898
		DMiss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10일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6/13-17일 Cross Cultural Basis for Deep Level Inner Healing• 6/20-24일 The Global Church: The Past, the Present, & the Future

2016 졸업식 (6월 6일 월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 Vision Center)

2016년도 가을학기 등록 시작 : 2016년 7월 1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ckhurst Rd
W Valencia Dr



새언약학교 재학생들. 이 학교가 선교사 자녀와 타 지역 목회자 자녀를 섬기기 위해 온라인 중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했다.

■ 기독사학 새언약학교

“교육 기회 부족한 선교사 자녀들 섬겨요”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미국 중고등학교 다녀
명문 기독사학 새언약학교 WASC 인가된 프로그램 실시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새언약초 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가 100% 온라인 중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하고 전 세계 선교사 및 남가주를 제외한 타 지역 목회자 자녀들에게 개방한다. 18년 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LA 지역에 설립된 이래 아이비리그 등 수많은 명문대생을 배출하며 화제를 일으켜온 새언약학교는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선교사 자녀와 전임 목회자 자녀를 섬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새언약학교 측은 몇 가지 장점을 꼽는다. 먼저는 저렴한 학비다. 새언약학교 자체가 일반 미국사립학교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다. 그러나 이 온라인 과정의 경우는 새언

약학교의 1년 학비인 1만 2천 달러의 1/3 수준으로 책정됐다. 사역의 절대적인 재정을 후원에 의지하는 선교사들에게 자녀 학비는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 자녀가 현지의 국제학교에 등록하거나 미국으로 유학하게 되면 학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래서 새언약학교는 이번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고 선교사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혜택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과정 자체가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로부터 100% 인가를 받은 과정이란 점이다. 즉 이 과정을 마칠 경우 미국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공식 인정되기에 미국 대학 진학이 용이하

다. 선교 현지의 국제학교 졸업생이나 미국 내 학교라도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를 졸업한 학생, 홈스쿨링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이라 수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우려도 있지만 새언약학교는 이미 7년 전부터 이 과정을 6학년부터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해 왔다. 또한 하와이 코나의 예수전도단(YWAM) 열방대학 산하의 러닝센터도 지난 2년간 새언약학교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십 명의 선교사 자녀를 교육해 왔기에 이미 충분히 검증받았다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미 인터넷에 익숙한데 굳이 오프라인 상의 교육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예습이나 복습, 반복 학습 등에 있어서는 효과가 높기도 하다. 그래서 시작

된 이 온라인 코스는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WASC의 공식 인가까지 취득한 것이다. 현재 PC, 애플맥, 크롬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플레시가 구동되는 기기라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짜여 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이나 미국 내 타주에서도 수학이 가능하다. 일단은 선교사 자녀, 타 지역 목회자 자녀로만 등록을 제한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학생의 상황이나 배경에 근거해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판단되면 조건부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새언약학교는 이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렸다. 먼저는 1년 중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새언약 본교를 방문해서 여름방학 과정 등을 들길 권장한다. 의무 사

항은 아니지만, 온라인 과정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오프라인 상의 교육으로 보강하려는 이유다. 또 6~12학년 과정에 ESL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하려는 학생은 이미 영어로 학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ESL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개방할 계획이다. 새언약학교는 이 과정에 있어서 크레딧(학점)을 얻을 수 있는 코스와 함께 그렇지 않은 코스도 마련해 놓아 선택의 폭을 넓혔고 일부 과정만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며, 60가지의 선택과목도 제공한다. ▲문의: 213-487-5437 ▲웹사이트: www.e-nca.org ▲주소: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김준형 기자

신구약 성경통독 집회

제59차신구약성경통독 집회가 한미 요한선교단 공동주최로 헐리웃호순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점점 약해져가는 오늘날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또한 성경에 대한 무지는 우리 개인을 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한다. 결국 복음의 진보를 가로 막게 된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보다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의 85%가 정기에 배에 참여하고, 72%가 신앙서적을 읽고, 53%가 장년주일학교 혹은 기독교 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하고, 51%가 소그룹 모임에 출석하고, 50%가 신앙잡지를 읽으며,

47%가 자원봉사 리더들로 섬긴다고 한다. -일시: 6월 13일(월) 오전 10시~16일(목), 3박 4일 -참가대상: 모든 말씀 사모자 -참가비: 1인당 70불 (부부 100불) -장소: 헐리웃호순장로교회 -주소: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문의: 213-268-3589

열매교회 창립15주년 감사·임직예배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창립 15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갖는다. -일시: 6월 5일(주일) 오후 12시

-장소: 열매교회 본당 -주소: 1938 S. Western Ave., LA, CA90018

부모님 초청 야외예배

부모님선교회(대표 주도진 목사)가 부모님 초청 야외예배를 갖는다.

-일시: 6월 5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Twila Reid Park -문의: 714-319-5397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에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차량 하세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까지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악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초대합니다
INVITATION

창립 15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지난 15년 동안 열매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임직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요섭 목사 외 교우 일동

집사장립 김정만, 배태민
권사취임 김기순, 문정옥, 박화형, 성정민

일시 2016년 6월 5일 주일 오후 12시
장소 열매교회 본당(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열매교회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개혁신학대학 및 대학원 졸업식”

휴스턴 새생명침례교회에서...LA캠퍼스 3명 포함 총 9명 졸업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초교파신학교인 남부개혁신학대학 및 대학원(SRTCS, 총장 테리 커티스 박사; 앞줄 우측에서 세 번째) 제6회 졸업식이 5월 21일 오후 휴스턴 새생명침례교회에서 거행돼 9명의 새로운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2014년에 문을 연 LA캠퍼스(총장 김희창 박사)에서도 3명의 문

화교류학 박사가 배출되었다.

이중에 목사(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제목: 레아의 사도적 여성 영성이 남성지배적 시대에서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정은순 장로(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제목: 교차 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알곡 상담 매뉴얼 개발), 이인승 목사(뒷줄 왼쪽에서 첫 번째, 제목: 복

장로교회의 부흥전략) 등이 박사 학위를 받았고, 노예식 목사(뒷줄 중앙)가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LA캠퍼스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문화교류학, 선교학, 목회학 박사)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 중에 있고 학비가 저렴하여 누구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다.

▲문의: 213-219-0649



페트라대학교 제2회 졸업생들이 교수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정중앙) 총장 김정호 목사.

“제2회 페트라대학교 졸업식”

인천국제총회신학교와 MOU로 과정 진행...13명 졸업생 배출해

페트라대학교(Petra University·총장 김정호 목사)가 제2회 졸업식을 거행하고 1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5월 20일 파사데나에 소재한 윌리엄캐리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1부 졸업예배는 이형근 목사(인천국제총회신학교 학술원장)의 개

회기도로 시작해 이영훈 목사(인천국제총회신학교 이사장)의 기도 후 김정신 교수(전 대신대, 백석대 교수)의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22:31-32)란 제목의 설교와 축도로 진행됐다.

2부 학위수여식에는 이규홍 목사(대신대 예능학과장)가 개회기

도, 김정호 본교 총장과 한신영 인천국제총회신학교 학장이 학위 수여, 정세열 교수(전 전북개혁신학교 학장)가 격려사, 고재원 교수(New Hope University)가 축사, 최승문 목사(학생 대표)가 광고, 김정호 총장이 축도를 했다.

한편 졸업식에 앞서 1주일간 단기 집중과정인 인천국제총회신학교와 MOU관계에 있는 페트라대학교의 2년제 과정의 일부로 윌리엄캐리대학교에서 진행했는데, 김정신 교수의 “히브리서에 대한 재해석”, 박사무엘 교수의 “치유신학”, 고재원 교수의 “출애굽기 석의”, 김숙영 교수의 “교회음악을 통한 치유” 등의 강의를 있었다.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16. 바리새인을 변호한다

나는 가끔 바리새인이 불쌍하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종종 바리새인은 사탄이 비난 받는 것보다 더 혼이 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 바리새인은 예수가 오기전 여호와가 명령한 율법을 지키려 목숨을 걸다시피 한 사람들이었다. 율법의 해석을 두고 수많은 전승이 추가되면서 지켜야 하는 규율이 너무나 많아졌지만,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실천하던 그들이었다. 민족을 배신하여 이익을 챙기는 세리나 강도짓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예수가 용서하였다 하여 그들의 죄가 바리새인의 교만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의 비유는 꼭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 율법을 따르려는 열심, 그 다른 종류의 부유함이 처절하게 죄인을 인정하는 것을 막아 구원 받지 못할 이들도 있을 것이기에. 인간의 자부심은 종종 교만과 타인에 대한 정죄로 연결되지 않던가. 그러나 비난받을 바리새인만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다.

예수를 밤중에 찾아와 구원에 대해 물었던 바리새청년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체를 수습한 뒤 새로운 교회를 후견하는 숨은 지도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 아니다. 바울에게서 그의 스승 가말리엘에 대해 소상히 들은 적이 있다.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 랍비 가말리엘. 그는 바리새인의 양대세력 중 율법의 해석을 엄격히 하던 삼마이 학파에 반대하는 힐렐 학파의 창시자 힐렐의

친손자이자 갓 태어난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의 아들이었다. 그는 바울은 물론 스데반과 바나바의 스승이기도 하였다. 예수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 할 때 이 새로운 가르침이 여호와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저절로 소멸될 것이라며 지혜롭게 저들을 만류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지도자였다. 어찌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말할 것인가. 오히려 수많은 바리새인이 예수의 날선 비판을 사후에 이해하고 예수의 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르고 있으니 예수는 분명 바리새인도 사랑하였음이 틀림없다.

17. 죽음을 넘는 사랑

로마를 가르스 테베레강 서쪽/유대게토에 베드로를 물었다./수제자마저 찾아간 네로의 광기는 의문을 남긴다./따르는 이의 행사가 복된 것이라면/예수의 도는 내 삶에 무슨 의미인가./오늘도 포로로마노에는 석양이 찬란하다./아프리카 아시아의 온갖 인종을 끌어들이는 제국의 영광/몸과는 이와는 하룻밤을 위해/값싼 포도주에 정신을 놓는 남정네들 너머로/검투사에 환호하는 서민들의 함성이 콜로세움 위로 퍼진다./죽으면 끝이거늘 뒤에 그리 목숨을 거냐고/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사람났는 어부로 살다가 죽음으로 답했다./실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테베레 서쪽 계마의 무덤위에 교회가 세워지리./제국의 영광에 마음한 켜 자리내준 내게 예수가 건네는 말./오네시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미주 예심전도대학 14기 수강생 모집

“전도에 관심있는 모든 성도 대상”

전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한다. 10초 메시지와 천국 네비게이션을 중심으로 일석이조 전도법, 순간포착 전도법, 철관 전도법 등 환상적인 전도법들을 강의한다. 미주예심전도대학은 6월 7일(화) 개강하며, 총 13주에 걸쳐 진행된다. 이 전도대학은 재미있는 어프러치, 쉬우면서도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행복하고 탁월한 전도자로 훈련받는 대학이다.

-일시: 6월 7일(화) 개강 총 13주 -문의: 714-401-9874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12시 30분까지
-장소: 남가주빛나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1752)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주 제 59차 성경완독집회
2016년 6월 13일(월)~16일(목)

3박 4일

성경 66권 완독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 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성경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강사 안성기 목사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강사 김동진 목사
한국요한선교단 대표



강사 임현영 선교사
우크라이나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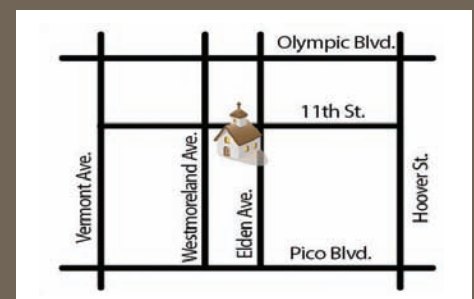


강사 이회철 목사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강사 김동원 목사
헬리웃순장로교회 담임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 : (213)268-3589



1101 S. Elden Ave., L. A. CA 90006

일시 2016년 6월 13일(월)~16일(목)

장소 헬리웃순장로교회(담임:김동원 목사)
1101 S. Elden Ave., L. A. CA 90006
Tel : (213) 268-3589

주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참가비 1인당 \$70, 부부 \$100

등록 6월 13일(월) 당일 오전 9시~10시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개회예배 6월 13일(월) 오전 10:00

수료식 6월 16일(목) 오후 6:00

특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암송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주최 :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 한국요한선교단 후원 : 기독교일보, 갯스윌연합교회, 헬리웃순장로교회

말은 자에게 구할 충성

고린도전서 4:1~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교회는 본래 이름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신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죄악에 찌들며 지옥길로 돌출을 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 수 있는 진리의 교회로 불러 모아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영적인 내세소망을 가꾸는 곳으로만 활용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은 조직을 통하여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회장이니 하는 직분과 직책을 앞세워 계급의식을 나타내고 섬기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교회가 마치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는 의식 속에 회회를 등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폐단들이 생겨나며 그것이 결국엔 교회들의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일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군이라는 말은 헬라어 ‘휘페레타스’로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를 이르는 말입니다.

교회의 목자도 하나님의 일군이십니다. 목자로 더불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직책을 맡으면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위한 ‘휘페레타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항상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인다는 위협 속에서도 그의 입술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피투성이가 되고,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온 몸에 쇠사슬이 묶인 상태인데도 밤중에 실라와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곳에 지진을 일으키시어 감옥이 다 허물어지게 만들고 그를 때린 간수장이 바울에게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며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입장을 완전히 초월하여 영적인 소망에 취하여 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휘페레타스’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듯 교회의 직분중에 장로가 가장 높다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 직분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 찾아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성실히 충성된 종

노릇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단에 있는 ‘비밀’이라는 말은 ‘무스 테리온’인데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공개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회를 세우시고 아직 덜 알려진 부분,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란 이 교회의 직분자들과 직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과 같이 옛사람과 그 행실은 다 없어지고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성실함으로 확실히 달라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일군의 자격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들을 희생시켜서 택하신 백성들로 성령의 계시를 따라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파송 받아서 성령이 하늘나라 데려가게 만드시는 계획이 구속사관이라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복음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회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생활 해온 사람들이 확실히 복음화 되어진 생활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전도의 성과도 있는 것입니다.

3. 2절의 말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스’, 우리말로는 집사(敎事)로서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일을 놓지 않고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쥐어 주신 일로 생각하고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때 온전히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나누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를 손에 잡았다면 그것을 손에서 잠시도 내려놓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연결고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직분을 빼앗기고 자살을 하였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그 처참함을 보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직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중심의 정성을 모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더 잘 섬기자는 목적으로 내 생활이 그 소원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건강과 물질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와 더불어 세웠습니다. 이후에 고린도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도바울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다니면서 회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고린도교회가 목자가 필요하게 되자

베드로도 갔었고, 아볼로도 갔었으나,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영적 지도자를 구분해 가면서 말썽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단 한번도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론을 내세워 그들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을 가르치는 영적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을 만들어 험담하고 패당을 짓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패당 짓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 사도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3~4절)”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해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 지은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곳에는 바울을 나쁘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영적인 은혜 분유기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귀적 역사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자꾸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고린도교회의 입지적 여건은 동양과

서양의 교차지점으로 무역이 가장 성행하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장사꾼들로 돈이 많아 사는 생활 속의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돈으로 교회 안에서도 행세하며, 패당을 일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신 말씀이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도다”는 말씀은 목자는 제쳐놓고 회회를 자기 맘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혈기대로 쥐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이것은 순교를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쓰여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진실로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원한다함은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할 수 있게 너희가 진정한 자격을 갖추어 가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목양지간에 신앙노선이 일치해야 합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 신앙지도를 받았던 간에 다시 이 교회로 보내셨다면 이 교회에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신앙노선과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체질신앙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같은 성령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 교회적 사명 의지에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선교하는 일에 합심전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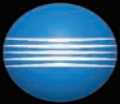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 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Simitri

bizhub
MarketPlace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제일 고마운 사람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살면서 고마운 사람이 많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사람은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도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다. 누군가 도와줄 고마운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은 부모다. 부모들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녀들을 사랑한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원은 언제나 긍정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외에도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삶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 수고하며 배운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물려주는 직장의 선배들, 비탈길을 걸어갈 때면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믿음의 벗들, 함께 손잡고 평생을 걸어가는 배우자, 티 없이 맑은 얼굴로 다가오는 자녀들... 우리 주변에는 고마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마운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뒷걸음치는 우리를 사랑과 인내와 열정으로 예수님게로 인도해준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질 때에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서 기도해주던 사람, 성경말씀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던 사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옛생활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면 손잡듯이 달려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던 사람, 누가 불세라 일른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며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주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게로 인도해준 전도자이다.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모여들고 있다. 많은 일자리가 있고 생활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라는 표지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가 점차 도시화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도시화의 특성은 비사회화다. 수백만 수천만이 웅기종기 모여 살고 있지만 이웃이 없다. 거대한 사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늘 깜짝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시작과 과정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미디어를 통하여 충격적인 결과만을 접하기 때문이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행위 그 이상이다. 전도는 이웃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행위이다. 전도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행위이다. 전도는 그 이웃을 예수님에게 맺어주는 행위이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인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되어보자.

거인과 싸우시는 하나님

이세돌 기사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바둑 대국은 많은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기계가 사람을 이기는 현실이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조지아텍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 야속 고엘이 쓴 조고 질 왓슨(Jill Watson)이 로봇이었는데, 학생들은 그녀가 로봇인지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막강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선한 일이 아닌 전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누가 탁월한 살인로봇을 발전시켰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뛰어난 무기가 승리의 요건인 것처럼, 로봇이 전쟁 필수품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고대에는 로봇 대신에 가공할 짐승이나 거인이 전쟁에 사용되었다. 사울이 왕이던 BC. 1050년 경에는 싸움에 능한 거인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는 중요 요소이기도 하였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를 잃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다. 다윗의 신하들은 나중에 골리

앗과 같이 장대한 4명의 남은 거인을 물리친다.

전쟁의 두려운 대상인 거인과 싸워 이기는 영적 유전자는 그 기원을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의 조상, 갈렙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믿음의 조상 갈렙은 거인과 대항하여 싸워 이긴 장수이다. 그는 아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법”이라고 말한다. 온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낙심시킨 거인들은 갈렙과 최초의 사사 웃니엘에 의하여 극복된다. 거인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결과이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나안 근방에는 거인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알 수 있다. 역사상 거인은 실제로 존재했고,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렸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신 1:28, 민 13:33)으로, 르바임(수 17:15), 삼숨민(신 2:20), 그리고 에밈(신 2:10, 11)으로 거명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인들을 에서와 암몬 자손,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두 정복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인들은 창세기 6:1~6에 등장하는 네피림이다. 이 네피림의 변성은 홍수심판의 중대이유 중 하나이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후손으로 전쟁의 용사이자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다. 이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결혼으로, 또는 왕과 평민의 딸들의 결혼으로도 해석된다. 초대교회와 유대랍비들의 유력한 해석은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의 결혼(벧후 2:4-5, 유 6-7)이라고 한다.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사탄은 메시아의 혈통을 파괴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탄생을 거부하려는 것이다. 어느 견해를 취하거나 가정의 파괴가 타락과 부패와 폭력과 음란의 근원이며 심판의 이유이다.

무엇을 듣고 사는가

지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가? 뉴스, 스마트폰,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불경기, 다이어트, 여행, 병원, 컴퓨터 등일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들으면 산다. 오히려 아무소리가 안 들리면 불안하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면 무엇인가 들려고 뉴스나 음악을 틀고 간다.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습관처럼 자리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소리를 못들을 때가 있다.

지금 무슨 소리를 들어야 가장 좋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잘 듣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지금은 잘 들어야 할 때이다.

여러 소리 중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임하시니라”(계1:3)

지키고 순종하기 위하여 읽고 들어야 한다. 만약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의 세계가 찾아 올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제1차 대각성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요 청교도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도 꼽

히고 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설교 중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촉발시킨 설교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이다. 그는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옥불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진노하고 계시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 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 당신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그분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

지 아니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윗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 떨어져 지옥의 구덩이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회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일어나 가슴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나뉘고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날은 어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뿐 아니냐며 만사태평이다.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부활의 면류관만 생각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값싼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패해졌다. 그래서 웬만한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들이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민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는다. 이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믿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먼저 강하게 임재해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숨겨 놓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간절히 통회함으로 새롭게 변화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 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북한사역 파트너십 협약식에 참석한 27개 교회 목사들이 교회 이름을 새긴 머릿돌을 들고 있다. ©컴패션 제공

“북한 사역위해 벽돌 든 목회자들”

한국 컴패션...27개 교회와 '북한 사역 파트너십' 협약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은 교회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사역을 준비하고 협력하는 '북한 사역 파트너십 협약'을 5월 24일 서울 한남동 사옥에서 개최했다.

서울·경기 지역 27개 교회 담임 목사와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지역별로 진행 예정인 '한국 컴패션 북한 사역 파트너십 협약'의 시작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다양한 교단 배경의 인사들이 '연합'의 모습을 보여 줬다.

협약식에 참석한 교회 관계자들은 북한에 전인적 어린이 양육이 허락되면 어린이센터를 설립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재정 지원과 인력 양성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협약식에서 서정인 대표는 "교회가 진정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섬기겠다"며 "우리는 북한에까지 하나님나라를 확장시킬 소망(행 1:8)을 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국컴패션에 부여하신 복은 북한 어린이들의 양육을 위한 준비 단계인 것 같다"며 "교회가 준비되어 북한에서 어린이 양육이 가능할 때, 하나님을 향한 한국교회의 첫사랑이 회복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북한 사역 파트너십 협약'은 3년 주기로 진행되며, 교회와 한국 컴패션은 북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하면서 3년간 교회 단위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을 진행한다.

또 상호 평가를 시행해 사역의 성숙도를 살피고, 북한 어린이 양육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협약식에 참가한 27개 교회는 지난해 6월 진행된 '2015 북한 사역 서밋'에 참석해 서약했던 100개 교회들 중 일부다. 2차 협약식은 오는 6월 28일 부산 지역에서, 이후 협약식은 10월 서울 및 영남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컴패션은 총 100개 교회와 협약한 후, 2018년까지 추가 100개 교회와 협약을 체결해 총 200개 교회가 사역에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2016서울광장퀴어축제 국민들과 함께 저지할 것

오는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른바 '퀴어축제'에 반대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기독교 등 종교계와 43개 시민단체가 함께 국민대회를 진행한다.

5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소개한 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김선규 목사·이용희 교수)에 따르면, 국민대회는 퀴어축제의 타락한 성문화 및 동성애 조장의 위험성과 이 같은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게 한 서울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1부는 기독교연합기도회, 2부는 국민대회로 진행된다. 이영훈(한기총 대표회장)·조일래(한교연 대표회장)·백남선(한장총 대표회장) 목사가 1부 공동대회장을, 정근모 박사(전 과학기술처 장관)가 2부 대회장을 각각 맡았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김선규 목사와 이용희 교수(각각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등 기자회견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강행했다"며 "그만큼 동성애는 국가와 사회, 가정의 윤리적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 조장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과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로 의연히 일어나, 동성애 조장 반대와 탈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막고, 정부가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동성애는 비윤리적 일탈이고, 의학·심리·사회·종교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현상"이라며 "절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국민대회를 개최해 동성애 퀴어축제에 대응함으로써, 반드시 동성애 조장 문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국민대회를 통해 가정을 보호하고 바른 성문화가 정착되기를 소원했다.

김진영 기자

“한반도 통일, 세계평화에 큰 부분 차지”

CCA추나카라 총무...방한 기자회견서 역설



메튜스 조지 추나카라 CCA 총무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A) 메튜스 조지 추나카라(Mathews George Chunakara) 총무가 5월 24일 서울 대한성

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맛디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나카라 총무는 지난해 2월 열린 CCA 실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5년 임기의 제10대 총무에 선출됐다. 인도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그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도 오랫동안 일해 온 인물이며,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개발·협력을 위해 조직된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EFK)의 의장직을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나카라 총무는 "CCA와 WCC에서 일하며 여러 번 북한을 방문했고, 관련 문제

들을 다뤘다"고 언급하면서 "평양의 봉수·칠골교회는 물론 가정교회 예배에도 참석했고, 평양신학원도 찾아 학생들을 만났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목격했다"면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곳으로, 100여 년 전 기독교의 부흥운동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는 한순간이 아닌 오랜 기간의 만남과 교류, 협력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CCA도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고, 그 중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CCA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에큐메니칼 기구로, 아시아 21개국의 17개 기독교·교회협의회, 100개 교회가 가입돼 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과의 연합과 연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텃밭운동 위해 뜻모아”

한교연-기아대책 업무협약 가져

한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과 국제한국구호기구 기아대책(이사장 손봉호 장로)간의 업무협약식이 5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중강당에서 열려 한국교회 위상회복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텃밭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실추된 한국교회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한국교회연합 제5회 총회에서 결의된 한국교회 텃밭운동은 그간 한교연 회원교단과 교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이 진행돼 오다가 기아대책과 손잡고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1부는 예배, 2부는 협약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2부 협약식에서는 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과 기아대책 손봉호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순서와 서울신대 노세영 교수(자기 총장)가 텃밭운동 참여 서약을 하는 순서도 각각 진행됐다.

이날 1부 예배에서 기성 총회장 유동선 목사는 "네 이웃이 누구인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

은 강도만난 자를 극진히 보살핀 사마리아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네 이웃인가" 묻고 계산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개회사에서 "한국교회 텃밭을 위한 한국교회와 기아대책간의 업무협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텃밭운동은 한국교회 갱신과 사회문제 및 봉사를 위한 기도협력운동으로 성도들의 성경말씀에 따른 올바른 삶의 변화를 위한 운동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 존중, 가정회복 및 사회통합, 빈곤, 폭력예방 등 한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후원운동"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같은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아대책 홍보대사인 가수 배다해도 참석했다. 또 텃밭운영위원장 호서대 양용희 교수 텃밭운동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박용국 기자

201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M.A), 상담학(M.A), 선교학(M.A),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31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643-0301 / Fax (323) 643-0302
www.aeu.edu/info@aueu.edu /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u.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다윗의노래합창단이 창단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윗의노래합창단 창단 연주회 열려”

1천여 명 청중 매료시킨...전문 성악인들의 연주와 합창

5월 22일 월서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다윗의노래합창단(David Song Singers) 창단 연주회가 있었다. 25명의 전문 성악인들이 2시간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1천여 명의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이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무반주 음악으로 16세기에 작곡된 2개의 곡(O Jesu Christe, Ave Verum Corpus)과 우리나라 서양 음악 초기의 작곡가 장수철 선생의 무반주 곡(나를 안전하게 하심), 요즘 한국에서 돋보이게 활동하는 여류 작곡가 우효원 씨의 작품(O Magnum Mysterium)을 연주했다. 이어 여류 작곡가 오병희 씨가 한국적 리듬과 가락을 담아 쓴 Horn Mass 곡

(Kyrie, Gloria, Sanctus, Agnus Dei)을 연주했다. 이 곡은 남가주에서 초연된 곡으로 French Horn과 함께 협연했다.

2부는 어느 연주회에서든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양식으로 진행됐는데 ‘Praise Worship Concert’라는 제목 아래 ‘성막’을 주제로 한 드라마틱한 공연이었다.

지휘자 송규식 목사는 “우리 합창단은 진정한 찬양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창단되었으며 앞으로 어느 교회에서든지 초청하면 찾아가 이 연주에서 보여준 찬양 회복 운동의 실재를 함께 나누기 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송규식 목사(714-699-0210/이메일: Qsong405@gmail.com



밸리 지역의 원로 및 은퇴 목사들이 주안예교회의 후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수련회로 영적 재충전 시간 가졌어요”

밸리원로은퇴목사회...후원해준 주안예교회 성도들께 감사

최근 밸리 지역 원로은퇴목사회가 그랜드캐년, 모뉴먼트 밸리, 엘시노 온천 등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5월 10일~12일까지 2박3일 동안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영적 재충전을 하고 회원 간 친목을 다지며 특히 밸리 지역 교회와 성도들, 지역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밸리원로은퇴목사회는 매년 2차례 수

련회를 하는데 5월에는 주안예교회(담임 최혁 목사), 10월에는 샌퍼난도밸리리안교회교역자협의회가 수년째 이 행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 행사에 다녀온 원로은퇴목사회 총무 문광원 목사는 “은퇴 목사들을 위해 후원금과 기도로 지원해 주신 주안예교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감사한인교회가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를 초청해 “부흥 하나님의 열정”이란 주제의 부흥회를 5월 15일~18일까지 개최했다. 집회를 마친 후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PCUSA 애틀랜타노회 정기노회 개최”

미국장로교(PCUSA) 애틀랜타노회 정기노회가 5월 17일 중앙장로교회(담임 한병철 목사)에서 개최됐다.

애틀랜타노회는 미국장로교 173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노회로 100개 교회에 450명 정도의 목사가 있는 노회로 일년에 네 번 정기노회로 모임을 갖는다. 이번 정기노회에는 모두 350명의 총대들이 참석했으며 애틀랜타노회를 한인교회에서 연 것은 2년 전에 연합장로교회 이후 중앙교회가 두 번째이다.

이번 정기노회의 주제는 ‘선교’로 남수단에서 사역하는 낸시와 셀비스 스미스마더 선교사 부부가 설교 및 선교보고를 했다. 특별히 복음주의연합(ECKAM)이 출판

한 이후 첫 번째 열리는 이번 노회에서 한병철 목사와 허정갑 목사가 그 동안 복음주의연합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과제에 대해 노회와 토의한 것을 노회에 보고했으며故 정인수 목사의 주요 사역을 기록한 동영상상을 통해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섯 명의 신임 목사회원 가입이 있었는데, 특별히 한인교회들 중 가나안장로교회 김중현 목사와 연합장로교회 존박(John Park) 목사가 가입했다.

노회는 또 오는 6월에 열리는 미국장로교 총회에 나가는 커미셔너(총대)에 대한 파송식과 올 여름 3년에 한 번 열리는 청소년수련회에 파송할 청소년 대표에 대한 파송식이 있었다.

윤수영 기자

-일시: 6월 4일(토) 오후4시
-장소: LA비전교회
-주소: 520 S. La fayette park pl., #200 LA, CA 90057
-문의: 유효정 박사(909-885-6787)

제2회 한부모가정축제

건강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진주담” 사역 중 한 행사인 한부모가정축제가 열린다.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전중학교 / 토요새벽-17와비전트 콘나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로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토 옆) T.(213)380-0071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0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아미아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일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한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iam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장, 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이희철 담임목사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아침남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2부 오전 1:30 3부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Young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예배 오전 8:00 2부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아침남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62-9191 F.(818)86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30
EM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8: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818)3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2부 오전 1:30 3부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아침남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62-9191 F.(818)86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30
EM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8: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818)3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2015 세계 성서 번역 현황

6,887

2015년 기준 전 세계 6,887개의 언어 중 단편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은 언어는 3,952개에 달한다.

성경전서 563개 언어

신약전서 1,334개 언어

단편전서 1,038개 언어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Dec. 31, 2015 기준). ©대한성서공회 제공

“성서 번역 언어, 지난해 21개 늘어 총 2,935개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보고 …자연 재해·테러·에볼라 불구하고 계속

[1면으로부터 계속]또 2015년 기준으로 20개의 새 번역본 및 개정본, 2개의 해설 성경이 출간됐다고 전했다. 특히 2015년에는 총 3,300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28종의 첫 번역이 이루어진 해로, 이 중 첫 번역 성경전서는 11개, 신약전서는 6개, 단편전서는 11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UBS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100개의 성서 번역 완료 프로젝트’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90개 언어가 완성돼 그 중 53개 언어의 성서가 출판됐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들 중 하나인 미얀마의 쿠미 친 성경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제작 출판됐다”고 소개했다. 쿠미 친 신약성경은 1958년 출판됐으나, 구약성경 번역을 계속 진행하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커져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1년에야 구약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번역 지원 및 성경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하면서 성경전서를 출간했다.

이대웅 기자

“美예일대, 성중립 화장실 설치하기로”


美대학들… 최근 성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서 멀어지고 있어

예일대학교는 학내 23개 건물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계획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예일대 인문자연과학교수단 소속인 타마르 젠들러(Tamar Gendler) 학장은 “우리는 이 전선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 모든 성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표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중적으로 알리려는 시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예일대 교수들은 ‘선호하는 대명사’(preferred pronouns)를 사용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나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전환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에 들어간 비용과 기타 의료비도 학생 보건 계획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예일대나 하버드대를 비롯해 미국 내 최상위권 사립대학교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하버드대는 학생들이 ‘히르’(hir)나 ‘제’(ze)와 같은 (남녀를 총칭하는) 비전통적 성적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 변화를 위해 성소수자 단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마이클 P. 버키(Michael P. Burke)는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 보다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언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버드대는 또한 학생들에게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비합법적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변화들에 대해, 빌리그래함전도협회와 사마리아인의지갑 회장을 맡고 있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같은 보수적 지도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레함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세속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신을 믿지 않는 그들의 어젠다를 우리 교육 체계와 기업들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텍사스 댈러스 소재 제일침례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목사도 최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논쟁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다. 이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물음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3개가 아닌 2개로 창조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인 혼란은 개인적·온정적으로 치유받아야 하는 정서 장애”라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캐나다, 정부 주도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안 마련”

표현에 따른 차별금지 포함…위반시 최고 징역 2년



저스틴 트뤼도 총리
©wikipedia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이끌고 있는 캐나다 자유당이 트랜스젠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성적 정체성과 표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징역 2년까지 처해진다. 이 법안은 기존의 캐나다인권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을 보강해 성적 정체성이나 표현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증오 범죄 및 발언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트뤼도 총리는 “오늘은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는 날”이라며 “LGBT 사회가 겪는 차별과 편견을 종식하는 데 모든 캐나다인이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안은 자유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무난히 통과된 후 상원 심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디 윌슨-레이볼드 장관은 “캐나다 국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방하고 차별과 증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캐나다인으로서는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하게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양성과 포용은 캐나다인이 오랫동안 지켜온 중요한 가치다. 정부가 이 가치를 실현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이미 수 년 전 트랜스젠더 보호법안이 진보 성향의 자유당 의원 제안으로 하원 심의를 거친 적이 있었으나,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는 이미 반동성애 증오 캠페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多무신론자 少기독교인”

잉글랜드와 웨일스... 각각 48.5% 43.8% 기록, 성인 되면서 교회 떠나는 추세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무신론자가 기독교인보다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현재 48.5%로 2011년 25%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자신이 기독교인(가톨릭 포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43.8%를 기록했다.

잉글랜드 트위크넘 소재 성모마리아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는 스티븐 불리반트 박사는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성장기 어린 시절에는 종교가 있었으나 성장 후 성인이 된 뒤에는 없어졌다고 답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스코틀랜드 사회 태

도 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인구 중 52%가 스스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1994년 40%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종교적 성향이 강한 북아일랜드의 경우, 지난 2011년 비기독교인이거나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의 영국성공회 및 가톨릭교회는 기독교인으로 자라난 이들을 붙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 시절 성공회 교인이었던 성인 10명 중 4명은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자신이 영국성공회 신자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9%였다.

가톨릭 신자는 2014년 8.3%, 다른 기독교 교파 소속은 15.7%, 비기독교인은 7.7%였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인들, 자신의 신앙 공개적 언급 안돼”

북미성공회 수석 주교...웰비 대주교의 발언, 절반은 맞다



저스틴 웰비 대주교 영국성공회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해선 안 된다”는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의 발언에 대해, 영국성공회 보수 지도자가 “절반은 맞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웰비 대주교는 5월 초 런던에서 열린 범종교 행사에서 전도와 개종을 구별하는 발언을 했다.

영국 8,800만 성공회 교인들의 수장인 웰비 대주교는 기독교인들에게 “누군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전도와 개종은 다르다고도 했다.

이 모임에는 유대교·이슬람교 등 서로 다른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웰비 대주교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타인을 존중하며, 내가 말을 하기보다 먼저 듣는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만의 신앙 선언을 다른 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을 물어보지 않는 한 신앙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선을 긋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프리미어와의 인터뷰에서 “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신앙을 나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도를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나 항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책임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미 영국성공회 수석 주교인 폴리 비치(Foley Beach) 대주교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누군가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최고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은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라고 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암을 치료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를 잠잠히 묻어 두겠는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시리아 서부 연쇄 폭탄테러...희생자 148명 이상”

시리아 정부군이 통제하는 서부 항구 도시 타르투스에서 자발레에서 23일(이하 현지시각)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148명 이상이 숨졌다고 아랍권 알자지라와 시리아 국영TV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오전 9시쯤 타르투스 시내의 버스·택시정류장에서 첫 번째 폭탄이 터진 후 3차례 추가 폭발이 일어났고, 비슷한 시간대 타르투스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자발레에서도 4차례 폭탄 공격이 있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번 연쇄 공격으로 적어도 자발레에서는 100명, 타르투스에서는 48명이 각각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부상자도 200명 넘게 나왔다.

두 도시에서 첫 폭발이 발생한 후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거나 부상자를 돕는 인파 속에서, 테러범이 자신이 입고 있던 폭발물 조끼를 스스로 터뜨리면서 인명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폭탄은 두 도시에 있는 주유소와 버스·택시정류장, 전력회사, 병원 응급실 정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이번 공격에는 5

명의 자살테러범과 2대의 차량 폭탄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국가(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IS 연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은 “IS 전사들이 타르투스와 자발레에 있는 알라위파 집합소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알라위파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속한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다.

시리아의 한 정부 관계자도 국영 사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테러리스트가 자살 폭탄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타르투스와 자발레 지역은 전통적으로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해 온 주민들이 다수 거주한다.

시리아 정부군이 엄격히 통제하는 데다 러시아 해군도 각 도시의 항구에 배치돼 있어, 다른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리아는 2011년 3월 알아사드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군의 시위대 진압과 내전으로 27만 명이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원부E college 주일 2:00PM
제지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교회 토 9:30AM-10: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철이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Puebl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o.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ifc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벽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규암 담임목사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6:00
토요일 새벽 6:00 토요일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Youth(1-12) 오전 11:00
토요일금요일 예배 프레스콜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l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대 오전 11:30
KM대학생예배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후 1:30(청년 예배)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예배) 전선부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예배)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이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c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아대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 주일 오전6: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려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 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경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소년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CA 지역 목회자, 선교사 부부 초청

교회부흥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공개집회:히브리 문화와 성경(6월 27일~29일, 저녁7:30)

선착순
100명
한정

한국 세종시에 개척 교회 시작, 하나님 은혜로 장년 성도 1,000명으로 급성장한 선우 권 목사님 초청!
 개척 3년만에 종교부지 500평, 연건평 1300평의 1200석 성전 준공!
 상가에서 출발해 매 주일 몇 가정씩 등록시키고 정착시키는 다양한 전도 방법, 새 가족, 특별 조직 관리!
 히브리문화와 언어의 비밀을 풀어 주면서 각처에서 모여들게 하는 능력의 메시지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 ❁ **일시:** ① 세미나 - 6월 27일(월) 오후2시 부터
 강의: Mon 2:00pm ~ 6:00pm (디너포함)
 Tue, Wed 10:00am ~ 6:00pm (런치와 디너 포함)
 ② 평신도 공개집회 월,화,수 저녁7:30

*수요일 밤10시에 강의 종료와 함께 미주목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드립니다.

- ❁ **회비:** \$40 (모든 교재와 식사포함). **송금 마감:** 6월15일
 체크를 다우니제일교회로 보내주세요
 pay to: Kwon Sunwoo Bank:우리은행 1721000410

- ❁ **세미나 장소:** 다우니 제일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담임: 안성복 목사 (562)861-1004



강사: 선우 권 목사

전,LA총신교회 개척시무(10년)
 전,분당 남서울교회 개척시무(3년)
 전,수지제자교회 개척시무(11년)
 세종온누리교회 개척(4년)
 개척3년후 부터 설교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천명이상의 성도들이
 히브리어 원문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세종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 이메일 등록, 문자등록 or 문의

- doctorsmchoi@gmail.com Tel:(760)636-2675
- 최승목 목사(CA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 한국으로 문의(이메일) 선우 권 목사 sunwookwon@hanmail.net
- 한국으로 등록(카톡) 010-2379-7938(유튜브 설교:선우권목사)

❁ 세미나 내용

1. 어떻게 개척교회가 단 기간에 대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2.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와 멀리서도 이 교회를 찾아 올 수 밖에 없는 비결.
3. 생명 넘치는 설교, 히브리 문화와 원문설교를 쉽게하면서 영성설교로 연결.
4. 제자양육과 목장관리, 전도의 새 비법, 불신자를 전도하는 새 관계 전도 방법.
5.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관리 조직 비결!



1200석을 메우는 세종온누리교회 주일 아침예배 장면

터키의 역사 및 선교의 전략적 중요성

터키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
성소피아 모스크와 박물관
성소피아교회로의 회복 위해 기도해야
이슬람협력국의 중추적 역할의 터키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

◆터키의 역사적 중요성

터키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 (길리기가 지방 다소, Tarsus, 행 21:39)으로서 아나톨리아(Anatolia) 반도(그리스어로는 ‘아나톨레’ <Ανατολή>로서 ‘태양이 솟는 곳’의 뜻이 된다)를 의미하며, 소아시아(Asia Minor, 그리스어로는 ‘미크라 아시아’ <Μικρά Ασία>)로도 불렸다.

터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셀주크>, 서머나<이즈미르>, 버가모<베르가마>, 두아디라<아키사르>, 사데<살라히리>, 빌라델비아<알라세히르>, 라오디게아<라오디케아>)가 있었으며,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1차, 2차, 3차)의 주 활동지가 되었던 곳이 된다.

이러한 터키의 역사는 AD559년의 돌궐(突厥)족을 그 조상으로 하여, 1959년에 건국 14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으며, 올 해 1457년 췌의 역사로 보고 있다. AD330년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명명(命名)된 새 로마의 수도 뷔잔티온은 비잔티움(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그 이름이 콘스탄티노폴리스(콘스탄티노플)로 불리우다가 1453년,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Mehmet) 2세에 의하여 함락되면서 이스탄불로 개명(改名)되었다. 즉 1071년 셀주크 튀르크에서, 1299년 오스만 튀르크 제국으로 바뀌었으며, 1923년 터키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수도를 이스

탄불에서 앙카라로 이전 (移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 소피아 성당은 AD360년, 콘스탄티누스 2세 때 건축되었고, AD415년, 테오도시우스 2세 때 재건이 되었으며, 532년의 대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537년에 유스티니아우스 1세가 재건하였다. 그러나 1453년 콘스탄티누스 11세 때,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2세에 의하여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당한 후, 이슬람의 모스크로 개조되었다가 1934년부터 아야 소피아(혹은 ‘하기야 소피아’: ‘성스러운 지혜’) 박물관으로 명명되어 사용 되어지고 있으며, 이스탄불의 역사적 상징(象徵)으로 남아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자리에 있는 바위 돌과 알 아크사 사원으로부터, 제3 성전으로의 회복을 기도하듯이, 터키 내의 크리스천들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성 소피아 모스크와 박물관으로부터, 성 소피아 교회로의 회복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본다.

◆터키의 선교 전략적 중요성

터키는 이슬람 협력 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 57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예멘, 시리아, 터키,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란, 팔레

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다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수단, 가봉, 모리타니, 말리, 지부티,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코모로,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제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토고, 우간다, 베냉, 수리남, 코르디부아르, 가이아나, 알바니아)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슬람 국가이기에, 전 세계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터키는 법적으로 1928년에 이슬람을 국가 종교에서 제외하였으나, 전 국민 약 8,000만 명 중 98% 이상이 무슬림인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며,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의 갈등의 중재자(仲裁者)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슬람 국가의 맹주(猛主)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슬람권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터키 내 개신교인은 약 6,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0075%이며, 교회는 140여개가 되며, 선교사는 전체 약 2,000여 명 (그 중 한인 선교사는 약 500여 명)이 되는 복음의 불모지(不毛地)로 볼 수 있기에, 또한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터키 복음화를 통하여,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중·근동 아랍 회교권 국가 22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며, 이스라엘 내 유대인(약 610만 명)과 팔레스타인 인(약 500만 명)과 아랍인들(약 170만 명)과 소수 민족인 드루즈인과 베두인들(약 30만 명)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성소피아 성당: 현재는 아야 소피아 박물관

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 회교권 국가들(O.I.C. 57개국 포함, 143개국)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함이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통하여, ‘중동의 화약고’를 ‘중동의 선교센타’가 되도록 함이 또한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이 또한 터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 라마단 기간은 6월 6일~7월 5일까지 30일간, 이슬람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금식’을 뜻하는 ‘사움’으로서 이슬람력 아홉 번째 달,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는 그들의 구원에 이르는 다섯 기둥 중, 네 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의무적 금식을 의미한다. 그 뜻은 ‘~을 이끌어내다’이며, 이러한 금식은 후천적인 다섯 가지 잘못, 즉 거짓말 하는 것, 중상모략,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것, 잘못된 맹세, 탐욕을 없앴다고 가르친다)이다.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를, 유일신으로 믿는 약 17억 6천만 명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와 함께, 양방향 선교 전략적 관점(구심

적 선교 관점 & 원심적 선교적 관점)과 총체적 선교적 관점으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6월 3일~6월 6일까지 아주사퍼시픽대학에서의 KWMF(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1977), 한인세계선교사대회와 6월 6일~10일까지 연이어 열리는 KWMC(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988), 기독교 세계한인선교대회를 통하여 참석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비전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양태철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북한선교]

숨길 수 없는 믿음



김창범 목사
손과마음선교회 사무처장

북한선교는 북한인 스스로에 의해

북한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김일성에 의해 기독교가 말살된 후, 공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대표적 종교가 기독교다. 북한은 1945년 이래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제한하고 탄압하다, 1954년부터 본격적인 말살정책을

펼쳤다. 1969년까지 ‘중앙당 집중 지도’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성분을 분석하여, 기독교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과 그 가족은 여지없이 숙청했다. 그래서 기독교의 흔적은 아예 사라지기가 싫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와서 북한은 남한의 성장 동력이 되어온 한국 교회 현상을 주목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략을 부렸다. 겉으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모양을 취함으로써, 이를 역이용하는 정책을 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선그린)과 같은 사이비 기독교 단체

와,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같은 가짜 교회를 만들었다. 한국교회의 현금과 후원금을 갈취하기 위해 가짜 예배를 집행하면서, 남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해외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었다.

정치적 위선이 가득한 북한 기독교는 신앙적으로 가짜이지만, 북한에는 진짜 기독교도 숨 쉬고 있다. 씨를 말린 종교탄압의 밀밭에서 도 숨이 쉰기지 않고 살아있는 기독교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지하교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북한 기독교는, 형태나 이름이야 어떠하든지 분명히 살아있다. 김일성 우상의 허위성이 드러나면서, 북한은 악의 세계를 지탱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 반대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 심령 가운데서 체험되고, 예수 그리스도

의 위대한 능력이 북한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한 지역에서 북한 사람을 만났던 손과마음선교회 선교사의 증언이다. 그 북한 사람은 평양에서 온 건설근로자라고 했다. 외화벌이 일꾼으로 파송된 것이다. 선교사가 시장에서 북한 근로자를 만난 것 자체가 위법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 근로자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을 때 이 선교사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고 한다.

그는 이미 8년 전 외화벌이 일꾼으로 해외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무렵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

북무 기간이 끝나 북한에 돌아간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얼마 후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 영접했다고 한다. 그 후 이 부

부는 은밀히 기도생활을 했고, 다시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 끝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북한이 무너져 복음의 나라로 바뀌는 것과, 자신이 북한에서 설교의 1인자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 북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숨어서 믿었던 지하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 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시 19:6)”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북한 선교는 북한 사람들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통일의 때가 오고 있다는 증거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신학 대학교

신학 대학원

일반 대학교

홈스쿨링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 의사 사랑

한 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 (8th &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즐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전세, 현수막, 각종 사진(실내외), 책자, 편지, 편지봉투,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발행

1. 전도용품 세트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양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발행

전도용품 세트 1,000set(\$180)
고급한글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있습니다.
전도용 설교시디

각종 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며, 물티슈도 고급한글과 미국 다양한 종류의 향수까지 제공합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발행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각종 후원적인 방법입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발행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튼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 731-0613
Engine (323) 752-2971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크리스천들의 비즈니스 무기를 만듭니다

sophiaproduct1.wix.com/2016

소피아 프로덕션

SOPHIA
PRODUCTION

인쇄광고, 온라인광고, 그래픽디자인, TV광고기획, 스토리보드, 비디오편집, 초상화, 정밀묘사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877) 580-2424
전화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웅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술가루와 질병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술가루 적용
차물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지독한 비듬, 두피염증, 가려움증, 탈모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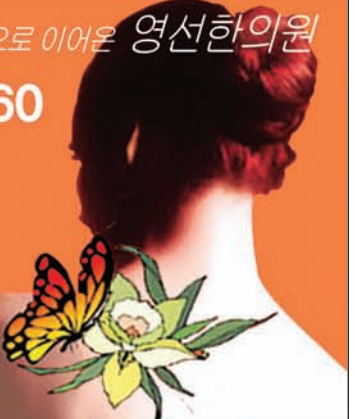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의원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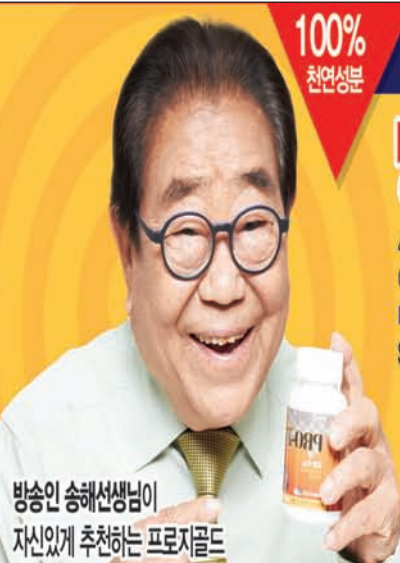
영선한의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방승인 송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실험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동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하나님이 꿈꾸신 가정

김상복 | 두란노 | 296쪽

‘행복한 가정의 10가지 성경적 원리’를 전한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성적 개방화 등으로 사회를 지배하던 유교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 때에, 성경을 기초로 믿고 따를 만한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다. 연습할 수 없는 자녀 양육에 대해, 수천 년 동안 증명돼 온,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륜과 이혼은 ‘죄’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위기의 목회자와 섬기는 리더십

미키 스토이어 | 쿰란출판사 | 4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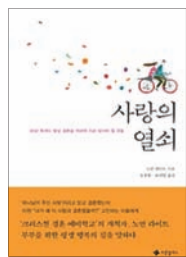
목회자의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책은 목회자가 겪게 되는 위기,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고 설명하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것들을 담고 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한 목회자의 참된 위치는 섬기는 자리에 있기에 목회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목회자의 올바른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시한다.



사랑의 열쇠

노먼 라이트 | 사랑플러스 | 3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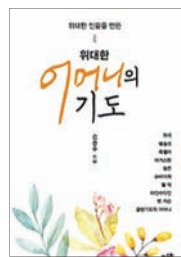
부부가 서로 다른으로 인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분노 조절법, 경청 대화법, 다른 성향 간의 대화 방식 조절법,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기, 뇌과학에 기반한 남녀의 차이 이해 등을 쉽고 친절하게 전한다. 부부 사이에 생긴 오해와 갈등의 벽을 넘어, 평생의 행복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

김경수 | 더드림 | 168쪽

저자의 어머니를 포함, 위대한 인물을 만든 10명의 ‘기도하는 어머니’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들이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또 어떻게 삶의 본을 보였는지를 살펴본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암브로시우스의 말처럼, 책을 읽다 보면 이 땅의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보다 ‘기도’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복음이 이끄는 집을 짓는 행복의 길, 행복의 길”

‘영원’을 기준 삼는 데서 건강한 가정이 시작된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 또 함께 읽는 책. 데이트 중인 커플 및 크리스천 기혼자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

가정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결혼생활과 부부 관계, 자녀양육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적당히 살다가 헤어지고 싶어서, 불행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러보면 다들 행복의 단꿈을 꾸며 결혼한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한국)는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이혼률로 ‘아시아 국가 중 이혼율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까? 더군다나 부부가 연을 끊고 갈라서는 동시

에 생기는 한부모 가정 문제는, 사회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양산하고 있다. 이쯤되면 “어떻게 해야 결혼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죠?”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나 신혼부부, 위기의 부부, 재혼 부부 할 것 없이 사회 전체가 외치는 간절한 호소다.

건강한 가정은 ‘영원’을 기준삼는 데서 시작된다.

거대한 ‘하나님 스토리’ 안에서 결혼을 해석하지 않으면, 누구나 엉뚱한 방향으로 질주하다 급브레이크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부부 제자도》의 공동 저자인 프랜시스 채와 리사 채 부부는 가정이 제자리를 찾고 제빛을 내는



부부 제자도
프랜시스 채
두란노 | 279쪽

이정표를 ‘영원’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결혼하는 것이 두렵다는 싱글들이 참 많다. 그리스도를 열렬히 따랐던 친구

들의 결혼을 지켜본 결과는 둘 중 하나였다. 가정이 주는 즐거움에 폭 빠져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 밀도 끝도 없는 부부싸움과 상담을 다잡쥬 헛바퀴 돌 듯 반복했다”고 밝히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시대 크리스천 가정의 현주소를 안타까워했다. 나아가 더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모순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길을 소개해 주고, 하나님을 직접 뵈는 그 날까지 그 길을 걷도록 격려한다.

더 늦기 전에 눈을 돌려 자신과 가족 구성원들, 가정의 초점을 재정렬할 때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본연의 사명을 향해 함께 달려가라! 채 부부는 ‘영원’에 집중하며 살기로 작정했을 때, 도리어 ‘지금, 여기’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한다. 각 장 말미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예수 제자 훈련’ 코너를 두어, 커플이나 부부가 따로 또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실천하기에 좋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배우자와 결혼생활에 매몰된 채, 세상이 생각하는 ‘좋은 가정’을 가꾸는 데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등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는 이들 모두에게 권한다. 이영인 기자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북소리부]

[추천도서]

“혼탁한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할 방향 제시” “교회와 신학의 빈혈시대”

웨스트민스터 총회 교리의 발전 과정을 심도 있게 다뤄...장로교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 도와

소망으로 바라보며 비전으로 품어 보기

개혁주의신학사(P&R)에서 출간된 ‘웨스트민스터 총회 시리즈’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크레이그센터의 괄목할 만한 연구물로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연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책이다.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교리의 발전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로버트 레담은 유능한 학자로서, 이 책은 조엘 비키와 칼 트루먼 교수에게 추천을 받았다.

이 책은 여러 자료들을 섭렵해 밀도 있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 장로교의 역사를 빠르게 이해하기 원하는 모든 학도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저자의 구(舊) 프린스턴 신학교의 A. A. 하지 교수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6장에 관한 견해는 논쟁적인 화두를 독자들에게 던져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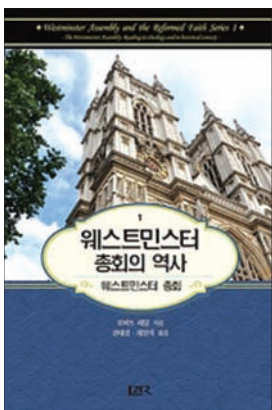
실제로 하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은 매우 잘 쓰인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가 밝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 논쟁과 그 궤도를 달리한다는 저자의 견해는 매우 흥미롭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영국 교회는 걸출한 설교자들을 배출했다. 저자는 전통적인 학자들의 과오를 다루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는데, 벤자민 위필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책은 두께만큼이나 값어치를 한다. 현재 미국장로교의 입장에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주일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대로 지키는 장로교회는 거의 전무하다. 그렇다면 사실상 노회에서 치리해야 할 문제인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과 청교도의 주일 성수는 관점이 상이했다.

이 책은 1부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적 상황을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신학적 상황을,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웨스트민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
로버트 레담
P&R | 656쪽

스터 총회의 신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3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다룬 여러 교리적인 면들을 다루어 주고 있다. 이 책은 여러 자료들을 섭렵해 매우 주의 깊게 다루고 있으며, 감춰져 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보화들을 재발견하여 오늘날 독자들에게 매우 호소력 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획기적 연구물이며,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책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있어 이러한 지적인 책을 읽는 것은, 가뭄과 실제적인 신앙 서적들을 읽는 것처럼 긴요한 일이다. 우리는 로이드존스가 휴가 때에 두꺼운 신학 서적들을 독파했던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주지하다시피 장로교뿐 아니라 전체 교회사에서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와 소요리문답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오늘날 매우 희귀하다.

또 어떠한 교회들은 교리 교육을 한다고 자체적인 교재를 만들어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악하기 그지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딱딱하다 하여 더부시하는데,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무게가 있고 딱딱한 것임을, 또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견고한 진리를 섭렵하라고 권고한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이 속출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고 실용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성장 프로그램과 훈련들에만 집착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켄달이나 바르트와 같은 현대 신학자와 목회자의 견해도 이 책에서 소개해 주고 있다. 모든 책들이 그러하듯 저자의 견해를 걸러 듣고 분별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독자의 몫이다.

그러나 모든 독자들은 이 책과 같이 충실한 책을 쓰기 위한 저자의 연구와 노력에 크게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책들이 창고 속의 고물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신앙고백서와 교리 문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우리 시대에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기여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허황된 비유 풀이를 하고, 세대주의 신학에서 성경적 근거가 빈약한 666과 휴거와 14만 4천을 가르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뼈대 없는 연체동물처럼 교리가 없는 삶만을 강조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가난한 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일찍이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탁월한 구약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영은 교리 설교를 매우 강조했고,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존스 역시 그러했다.

교리 설교가 혐오를 받고, 심리학적인 설교와 감정주의를 부추기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알팍한 진리가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이 반가우며 혼탁한 한국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귀한 책이다.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책들이 쓰이고 번역될 때 한국교회가 조금 더 새로워지게 되며, 장로교 목사들이 장로교의 표준 문서에 대해 무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책들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쳐 한국교회도 교회의 황금기를 회복하는 복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본다.

김재윤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목사 신학자
제럴드 히스탠드
부흥과개혁사 | 278쪽

이 책의 논의는 현 시대 목회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그 혼란으로 인해 사역적 회의와 중도 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는 고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목사의 정체성인 ‘목사 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목사가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의 분석이 모든 목회자들의 회의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의 회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저자는 이러한 1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2장에서는 ‘목사 신학자’의 개념을 교회사 안에서 정리하여 펼쳐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학자와 목회자가 분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목자가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했음을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3장은 이렇듯 교회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던 ‘목사 신학자’의 전통이 어떻게 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단순히 교회의 필요라는 측면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목사와 신학자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약술한다.

책에서 내게 가장 인사이트가 있었던 부분은 4장과 5장이었다. 이 ‘목사 신학자’가 사라져 버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그 답은 4장에서 교회가 신학적인 답을 갖지 못한 상태로, 5장에서 신학 안에서 교회와 관련된 요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각각 소개한다.

“믿음이 그 길을 잃으면, 갈망은 잘못되고 윤리는 비틀거리게 된다.

윤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에 연결되어 있는 한, 그리고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신학의 일인 한, 적잖이 복음주의의 윤리적 빈혈은 잠재해 있는 신학적 빈혈에 원인이 있다(103쪽).”

“신학자와 목사의 분리를 통해 교회에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을 상세히 진술했다. 종합하자면, 이 분리는 교회의 신학적 빈혈과 신학의 교회적 빈혈을 가져 왔다(145쪽).”

저자가 내놓는 이 분리로 인해 깨어진 교회 공동체에 대한 대안은, ‘목사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목사 신학자’가 과연 어떠한 개념인지를 정리하는 부분이 6장과 7장의 내용이다. 우리가 이미 오래 전에 잃어버린 것이지만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목사 신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해석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교회의 신학적 빈혈과 신학의 교회적 빈혈’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목사 신학자’가 다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목사 신학자’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의 목록이다. ①박사학위를 취득하라 ②신학을 귀히 여기는 직원을 세우라 ③관계망을 형성하라 ④연구 시간을 견고하게 지키라 ⑤교회적 신학 책을 읽으라 ⑥일하는 곳을 ‘서재’로 부르라 ⑦연구와 글쓰기를 위한 휴가를 일정에 포함시키라 ⑧신대원생을 고용하라 ⑨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지지를 얻으라 ⑩사랑의 필요성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이기게 하라.

저자는 반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목사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의 강조점은 이 교회와 신학의 빈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사 신학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이미 이 책이 말하는 ‘목사 신학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의미가 있다. 교회와 신학의 빈혈이라는 이 문제는 결국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게 치명적인 것이기에, 교회를 돌보는 이로서 이 현상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까닭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이 책이 말하는 빈혈을 해소할 ‘목사 신학자’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책은 유효하다.

조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i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 ✓ **건강에 좋은 세탁 세제**
- ✓ **주방 살균소독 대만족**



1kg(1000g)
가정용 세탁기(200~300회 사용함)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세제!

새로운 개념의 항산화 세제

에미나99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 대신 친환경, 무공해, 다용도 “에미나99” 항산화 세제를 꼭 사용해 보세요!

사용 효과

- 세탁 시 유연제 필요없고, 정전기 방지되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좋은 세탁물이 됨
-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 하면 피가 더 잘 통하고, **기름기 잘 지워짐**
- 청소(화장실 변기, 욕조, 마루, 가구, 가전제품, 식당, 후드, 세차) 시에 화학물질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 **공기를 정화시킴**
- 애완동물 목욕, 어항 수질 유지와 뿌리면 집안의 **모든 냄새를 없앴**
- 농작물에 적은량을 뿌려주면 진딧물과 병충해가 없고 수확이 3배 이상이 되며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음(꽃에 뿌리면 빨리 시들지 않음)
- 양치질,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방지, 곰팡이 제거



자매품: 물돌, 밥돌,튀김돌, 생생팩, 신비의물통, 세수비누, 샴푸, 로션, 크림은모두 항산화 용액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 산화를 막아주는 세계 유일의 특유한 제품입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Tel:(323)316-6815 / 인터넷 “약손 나손” 검색 /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레오 갤러리아)

Asian American Ministers, Artists, Activists Dialogue on Intersection of Faith and Culture

BY RACHAEL LEE

The Asian American Initiative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hosted its first all-day conference on Saturday exploring Asian American identity, and how it relates to an individual's understanding of the gospel. In particular, the conference aimed to examine that intersection through the lens of pop culture, as guest speakers included comic book writer and artist Gene Luen Yang, blogger Phil "Angry Asian Man" Yu, musician Tim Ouyang of Tim Be Told, and comedian and writer Jenny Yang.

"Pop culture is huge right now," said Ken Fong,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n American Initiative at Fuller. "We wanted to see the convergence of all that -- culture, Asian American identity, and the gospel. And we wanted to highlight these individuals who keep their faith in the midst of what they do -- in Gene's case, he's kept faith at the center of his work."

"It's changing for the better, but we've still got a long way to go," Fong added, referring to the progress of Asian American dialogue and representation.

"We want to reac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but in order for us to get there, all of this matters, including our Asian American identity. You can't get there without an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said Daniel Lee, program director of the Asian American Initiative.

An afternoon portion of the conference included a panel with Gene Yang, Phil Yu, and Tim Ouyang, along with Asian Americans involved in ministry, including Jerome Mammen, the area director for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in Orange County, and Margaret Yu, the national executive director of Epic Movement, the Asian American ministry of Cru.

Several panelists shared experiences of pain and discrimination. Jerome Mammen, who is Indian American and often grows out his beard, shared that he was once misunderstood as a terrorist.

"Someone took my license plate number down and reported me," Mammen said. The FBI showed up at his home, and requested to investigate.

"That's when I realized again, how I see myself is different from how others see me," he explained.

For Phil Yu, a turning point that sparked his activism for the Asian



Panelists at the recent 'Altered Egos' conference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hared their experiences and thoughts regarding the intersection of faith and culture.

American community was watching a documentary about Vincent Chin, who was killed in 1982.

"I remember I was shaking in my chair," Yu said of the experience. "And I was just thinking, 'How come I'm only learning about this now? That could've been me.'"

But when trying to promote Asian American identity in the journey of deepening their faith, panelists shared they often found themselves faced with opposition or dismissal from within and outside of the church.

"People would say, 'You're Christian before being Asian,' but some people say that because they don't have anything to lose," said Daniel Lee. "But for us, it's such a huge chunk of who we are."

Gene Yang shared that some would criticize him for integrating his faith into his work.

"Someone once said that my work feels like a 'colonized version of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Yang said. "As though White culture is dominating again and has a foothold in my art."

"I still don't know a good resolution to that," Yang said. "I just live in the tension."

To that, Daniel Lee argued, "Christianity actually started from the East."

"But it seems that White normativity is so pervasive that it makes people think that Christianity is 'White' or 'Western,'" he added.

Dismissing the physical and only emphasizing the spiritual identity as a Christian is counteractive to deepening one's faith, said Margaret Yu.

"When we separate the spiritual and the physical, that's gnosticism,"

said Yu. "And when we separate those two parts, we're missing out on Jesus. He wants to redeem all of us, including our culture."

"I don't think you can divorce culture from Christianity. The way you see God is fundamentally shaped by culture," said Tim Ouyang. "I have faith he's sovereign over all of these things. Every single culture has a gift. He's poured out a bit of who He is in each culture."

An individual's culture and heritage also allows for greater ministry opportunities, added Jerome Mammen, referring to the Apostle Paul as an example.

"Paul says that all of the earthly things are loss compared to the gospel, but when he goes to places to preach, he uses all those things -- his Roman citizenship, speaks in Hebrew -- to do his ministry," he explained.

The panelists didn't seem to offer a blanket resolution to counteract the challenges of intersecting faith with culture within and outside of

the church. But each did seem to have advice to share on an individual level in terms of how to reconcile or navigate through them.

"Pursue the most authentic version of yourself," said Phil Yu. "Just be unashamed for being Asian."

"In the margins of the tension, you'll find Jesus. Bring your questions to him: 'What do you say about me being Asian?'" advised Margaret Yu.

"I've become content knowing I'm not going to fit in anywhere. But being an alien in a foreign land is normal, and that's good news," shared Jerome Mammen.

"You can't wait for all of your questions or internal conflicts to be resolved. You just have to be able to live in that tension," said Gene Yang.

"As long as you are solidified in the fact that you are loved, you are significant -- you'll be free to do what you want," shared Tim Ouyang. "You don't have to be bound by what others say about you."



Graphic novelist Gene Yang was featured as one of the speakers at the event.

Korean Church Leaders Continue Preparation for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BY JUNHYEONG KIM
TRANSLATED, EDITED BY RACHAEL LEE

As the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is quickly approaching, organizers of the event have been hosting gatherings to prepare and pray for the event. The most recent preparation gathering took place on Tuesday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in Fullerton, CA.

Many of the Korean pastors who are well-known in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church community, including Rev. Ezra Kang of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and Rev. Paul Kihong Han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were present, and in particular, Han noted, "The event is launching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but let us prepare so that we will be able to welcome with gladness the missionaries who have been working hard to share the gospel and so that the event will overflow with blessings."



Organizers of the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gathered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to pray and prepare for the event earlier this month.

KWMC has taken place once every four years, and previously, the event had been hosted at Wheaton College in Illinois. This year will be the first KWMC that is taking place in Southern California at Azusa Pacific University. While previous conferences have also usually taken place in July, this year, the event will be taking place in June, from June 6 to 10.

These circumstances have made preparations and gathering attendees more difficult, organizers explained during another preparation gathering that took place

earlier this month.

"If we had organized the conference to take place in the Midwest, about 3,000 attendees could have been secured, but since it is our first time hosting the event in the Southwest, it hasn't been easy," shared Suk-Hee K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But the fire of missions must be ignited in Southern California, where the most amount of Korean Americans live."

As of May 11, some 820 missionaries were registered for the conference. Organizers expressed

hopes that at least 1,000 missionaries, 2,000 pastors and lay members, and 5,000 youth and young adults would attend the conference, and that some 7,000 would attend the night sessions.

Organizers have been gathering every night between 8 PM and 10 PM to pray for the conference. They have also been visiting churches to encourage pastors and lay members to attend.

'Authentic Christ Found in Tension Between Cultures'

Graphic novelist
Gene Yang shares
experiences of
conflict between
'Western' faith,
'Eastern' culture

BY CHRISTINE KIM

On Saturday, May 21, the Asian American Initiative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hosted a conference exploring "the intersections between gospel, pop culture, and Asian American identity" where graphic novelist Gene Luen Yang shared his own experiences of exploring his Asian-American identity in light of the gospel.

"Asian American issues of identity sit at the heart of my work," Yang said. His book, "American Born Chinese," follows different characters as they grapple with issues of identity, race, and eventually, self-acceptance. In January 2016, Yang was appointed by the Library of Congress as the National Ambassador for Young People's Literature.

"A lot of what we struggle with as Asian Americans is that we are foreigners, that we're not American," Yang said.

There is a certain way comics have portrayed Asians historically, Yang explained. The "yellow peril" villain played upon the American people's fears of the perceived threat that Asian people posed to the Western world. It was a "staple in American pop culture," Yang said.

There is also the message that embracing Western faith is turning one's back on Eastern culture, Yang continued, referring to the history of Christianity often being used to colonize other countries.

This tension between Western faith and Eastern culture was particularly prominent during his college years as he tried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my calling?"

"For me, it became Western faith versus Eastern culture," Yang described. "One side told me, 'Follow your passions. Fulfill your dreams,' while the other said, 'Secure your financial future. Fulfill your responsibilities.'"

However, as he meditated on Psalm 139 and the idea of divine intention, he said asked himself a different question.

"There is a universality in the Christian story: in every culture, there is always the value of self-donating love," Yang said. "Now, instead of asking myself, 'What is my calling?,' I'm asking, 'How can I live out self-donating love?'"

"Authentic Christ is found in the tension," Yang added. "Living in the tension forces you to see both sides in human terms and this points to the need for self-donating love. If you feel tension between two sides of yourself, try to live in that tension."

Christianity Daily will not be issued next week.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Attendees worshipping at the 2008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Conference.

United Methodist Church Postpones Decision on Sexuality Issues

BY CHRISTINE KIM

The United Methodist Church voted on Wednesday to appoint a commission that would study whether to allow the ordination of LGBT clergy and to permit clergy in same-sex relationships to be married. The commission will be appointed by the Council of Bishops.

The delegates voted 428 to 405 in acceptance of the Council of Bishops' recommendation to delay its debate on sexuality issues at this year's General Conference which gathers every four years to "revise church law and adopt resolutions on current moral, social, public policy and economic issues," according to the UMC website.

"We recommend that the General Conference defer all votes on human sexuality and refer this entire subject to a special Commission, named by the Council of Bishops, to develop a complete examination and possible revision of every paragraph in our Book of Discipline regarding human sexuality," the recommendation titled, "An Offering for a Way Forward," reads.

"We will name such a Commission to include persons from every region of our UMC, and will include representation from differing perspectives on the debate."

According to the United Methodist Church's Book of Discipline, its governing book, homosexuality is "incom-

patible with Christian teaching." While many mainline Protestant denominations have allowed same-sex marriage and gay clergy,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as maintained its ban for the past 44 years. Some point to the UMC's rapidly growing conservative branches in Africa and Asia as one of the possible reasons for its hesitation to change the language in the Book of Discipline despite a growing LGBT activism within the denomination's ranks.

"We will continue to explore options to help the church live in grace with one another — including ways to avoid further complaints, trials and harm while we uphold the Discipline," the Bishops' statement reads.

Church of Scotland Votes to Allow Individuals in Same-Sex Marriages to Be Appointed as Ministers

The Church of Scotland voted to allow its gay ministers to marry. The church, however, left the theological definition of marriage beyond the purview of the meeting, and will take it up next year.

Attendees of the Church of Scotland's General Assembly meeting, which opened in Edinburgh on Saturday, voted 339-215 to allow congregations to appoint individuals in same-sex marriages as ministers or deacons.

The church still maintains its traditional view of marriage between man and woman in its theology, however.

"We had a debate which made very clear that we were not interfering with our theological definition of marriage and were not going to the place where ministers or deacons could themselves be conducting same-sex marriages," said Rev. John Chalmers, principal clerk to the general assembly.

"It is an entirely different discussion," he added.

The Theological Forum will present its report to the church in 2017 when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same-sex marriage will be discussed in greater detail, and the church will decide on its theological stance on the issue.

Twenty five (about 3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ministers have left the Church of Scotland because of disagreement over the issue of same-sex relationships.

About 32.4 percent or 1.7 million Scottish people adhere to the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

More than 850 commissioners from Scotland, the rest of UK, Asia, North America, Africa, Middle East, Europe, and the Caribbean came to attend the 2016 general assembly.

Rev. Scott Rennie, the church's first openly gay minister, said that the general assembly decision was positive for gay people, and that he wants to extend the role of homosexual clergy to grant them authorization for presiding over

same-sex marriages and civil unions.

"Ministers can be ordained and can be in a same-sex marriage or a civil partnership but ministers can't marry same-sex couples," Rennie told The Courier. "The next big step is for the church to say, for ministers who are happy to, you can conduct marriages of people of the same gender."

Rev. David Robertson, moderator of the Free Church of Scotland, said that he was "saddened" by the church's decision.

"In adopting this policy the Church of Scotland has not only dissociated itself from the vast majority of Christian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Catholic, Orthodox and Evangelical) but has lost all claim to be the National Church for Scotland," Robertson was quoted as saying by The Telegraph. "It is a sad day for all the Christian churches in Scotland when what used to be the National Kirk, has now departed so clearly from the Bible."

Christian Organizations Join Hands to Kickstart Africa Study Bible

BY RACHAE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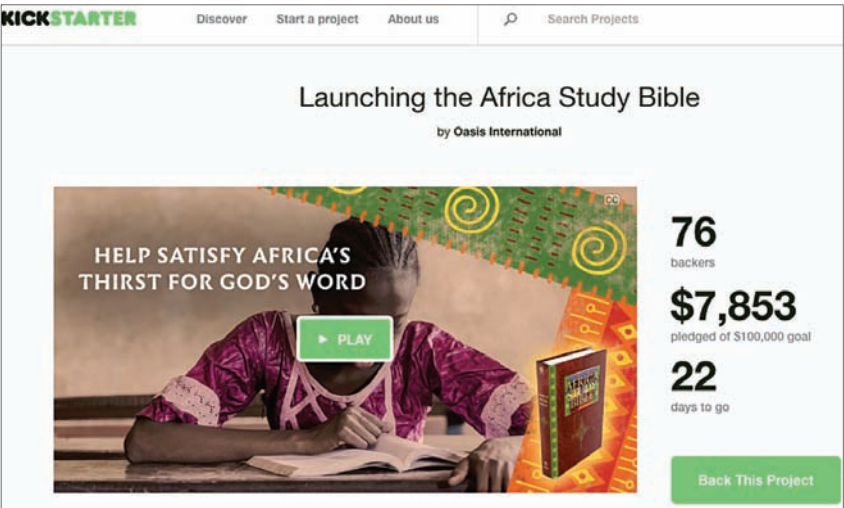
A group of Christian organizations is partnering together to launch a study Bible with notes contextualized to the African culture.

Spearheaded by Oasis International, a publishing ministry for Africa, the project called the Africa Study Bible aims to provide a study Bible produced and developed "by Africans for Africans,"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More than 300 individuals from 50 countries have contributed to the project, and major Christian organizations such as Campus Crusade for Christ International, Willow Creek, Moody Broadcasting, The Livingstone Corporation, and others are partnering with Oasis in support.

"Hundreds of millions of Africans know and love Christ. However, most discipleship and biblical resources come from a Western perspective -- a culture far removed from their own," said Oasis International in its Kickstarter page.

"The Africa Study Bible bridges the gap of cultural understanding and Scriptural relevance by revealing the truth and beauty of God's Word through African eyes," the group stated.



(Photo: Screengrab of Kickstarter page) The Africa Study Bible Kickstarter page as of May 25.

"With the ASB, we're bringing the power of Scripture to Africa in a new and culturally relevant way," Dr. Matthew Elliott, the president of Oasis, said. "Under the leadership of an 11-member editorial board of scholars from across Africa, we've brought together 350 writers and editors from over 40 African countries, representing 50 denominations. This is an unprecedented project that will impact the global church."

The first set of Bibles to be released will be in English in the New Living Translation (NLT) with more than 2,200 notes. Oasis plans to also provide study Bibles in French and Portuguese thereafter.

Oasis is currently running a Kickstarter page to fundraise \$100,000 to help print the first 100,000 copies of the Africa Study Bible. The Kickstarter will close on June 17, and has some \$7,800 pledged as of May 25.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정의 달 SALE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SE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All in Stock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10,0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6 HYUNDAI GENESIS Signature Package

Lease It For **\$239** +Tax

**All In Stock With
MSRP \$43,785**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3,500 Lease Cash,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